

01. ② 02. ④ 03. ② 04. ① 05. ② 06. ⑤ 07. ④ 08. ⑤ 09. ⑤ 10. ③
11. ② 12. ③ 13. ④ 14. ④ 15. ⑤ 16. ④ 17. ② 18. ③ 19. ① 20. ③
21. ③ 22. ② 23. ① 24. ⑤ 25. ① 26. ② 27. ③ 28. ④ 29. ⑤ 30. ①

[1~5] 발음 및 어휘

1. 모음 ‘eau’의 발음

Voilà ton cadeau ! 네 선물이야!
[kado]

- ① soif [swaf] 갈증 ② chaud [ʃo] 더위
③ jeudi [ʒødi] 목요일 ④ poulet [pule] 닭고기
⑤ monsieur [məsjø] (남자 이름, 칭호 앞) 씨, 귀하

정답해설: 제시문의 단어 ‘cadeau’의 밑줄 친 ‘eau’는 [o]로 발음된다. 답지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이 [o]로 발음되는 부분을 가진 낱말은 ②번 ‘chaud’[ʃo]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2. 철자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적어도 다섯 가지 채소와 과일을 매일 드세요.

- ① 기차 ② 4월 ③ 소음 ④ 아침 ⑤ 카드

정답해설: 해당 문항은 제시문의 의미에 맞게 빈칸을 채우고 해당 철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어지는 단어의 의미를 답지에서 찾는 문항이다. 제시문의 빈칸에 들어갈 철자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santé’(건강), ‘mains’(손), ‘cinq’(다섯), ‘légumes’(채소), ‘fruits’(과일)이고 해당하는 철자는 ‘a, i, n, m, t’이다. 답지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단어는 ① 기차는 ‘train’, ② 4월은 ‘avril’, ③ 소음은 ‘bruit’, ④ 아침은 ‘matin’, ⑤ 카드는 ‘carte’이다. 따라서 답지 중에서 철자 ‘a, i, n, m, t’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은 ④번 아침(matin)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3. 어휘-동사

아버지: 엄마가 곧 돌아올 거야. 가서 저녁상 좀 차려집.
아들: 알겠어요.

- ① 먹다 ② 차리다 ③ 머무르다 ④ 초대하다 ⑤ 점심 식사하다

정답해설: 대화 맥락상 A의 빈칸에는 명사 ‘table’(식탁, 테이블)과 결합하여 ‘저녁 식

사를 위한 식탁을 차리다'의 의미를 만드는 동사가 들어가야 한다. 답지 중에서 ②번 'mettre'(놓다, 입다, 차리다)는 'mettre la table' 형태로 '식탁을 차리다'의 의미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4. 어휘-명사

- 나로서는, 너의 의견에 동의해.
- 선생님은 각각의 문제를 별도로 설명하셨다.

- ① 몫, 부분 ② 상자 ③ 수업 ④ 광장 ⑤ 교실

정답해설: 첫 번째 문장의 빈칸에는 '나로서는', '나의 입장에서'의 의미를 만드는 명사가 들어가야 한다. 또한 두 번째 문장의 빈칸에는 전치사 'à'와 결합하여 '별로로', '따로'의 의미를 만드는 명사가 들어가야 한다. 답지 ①의 'part'는 '몫, 부분'의 뜻으로, 'Pour ma part' 형태로 '나로서는, 나의 입장에서'의 뜻이 되고, 'à part'의 형태로 '별로로, 따로'의 의미가 된다. 따라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①번이다. 정답 ①

5. 어휘-부사

- A: 그에게 즐거운 하루 보내라고 말했는데, 그는 나에게 답조차 하지 않았어.
B: 했어, 그도 너에게 똑같이 말했어.

- ① 멀리 ② 조차/같이 ③ 또한 ④ 여전히 ⑤ 특히

정답해설: 대화 맥락상 A의 빈칸에는 '~조차'라는 의미의 부사가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B의 빈칸에는 전치사 'de'와 결합하여 '똑같이, 마찬가지로'의 뜻이 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 답지 중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부사는 ②번 'même'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6~21] 의사소통 기능

6. 대화 내용 이해하기

- A: 실례합니다, 부인! 로댕(Rodin) 박물관이 이 방향인가요?
B: 죄송합니다. 이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 ① 제가 옳습니다 ② 그건 쉽습니다
③ 그건 빨리 갑니다 ④ 그건 좋습니다
⑤ 죄송합니다

정답해설: 대화는 로댕(Rodin) 박물관이 어느 방향인지 묻고 답하는 상황이다. B가

빈칸에 이은 대화에서 방향을 잘 모르겠다는 의미로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고 답하는 것으로 보아, B의 빈칸에는 유감의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7.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네 사전 빌려줄 수 있어?

B: 문제없어. 하지만 내게 그것을 돌려주는 거 잊지 마.

A : 약속할게.

- ① 나도 아니야 ② 분명히 아니야
③ 그것은 불가능해 ④ 문제없어
⑤ 그것은 너와 상관없이 없어

정답해설: 대화문은 A가 B에게 사전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상황이다. 사전을 빌려달라고 하는 A에게 B가 빈칸으로 답하면서 자신에게 돌려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덧붙여 말하는 것으로 보아, B의 빈칸에는 빌려주는 것에 동의하는 표현이 들어 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정답 ④

8.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실례합니다. 이 의자 비어 있나요(가져가도 될까요)?

B: 네,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지요.

A: 감사합니다.

- ① 말도 안 됩니다 ② 금지되어 있습니다
③ 그 의자는 주인이 있습니다 ④ 내버려 두세요
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정답해설: 카페에서 의자가 필요한 A가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는 B에게 빈 의자를 가져가도 되는지 묻는 상황이다. A의 질문에 대한 B의 반응에 대해 감사의 표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B의 빈칸에는 승낙의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9.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업무차 여행을 가야 해. 내 고양이를 맡아줄 수 있어?

B: 그래, 얼마 동안이야?

A: 금요일 저녁까지야.

B: 알았어, 걱정하지 마.

- ① 가격이 얼마야 ② 그것은 어떻게 팔아(판매 단위)
③ 오늘 며칠이야 ④ (가격이) 얼마부터야

⑤ 얼마 동안이야

정답해설: 대화는 업무차 며칠 동안 여행을 떠나는 A가 자신의 고양이를 B에게 맡기는 상황이다. A의 두 번째 대사에서 금요일까지 맡아주면 된다고 답하는 것으로 보아, B의 빈칸에는 고양이를 돌봐줄 기간을 물어보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0.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이 사진 멋지다!

B: 정말 그래. 나도 사진이 멋지다고 생각해.

- ① 물론 아니야 ② 네가 틀렸어
- ③ 정말 그래 ④ 별로야
- 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정답해설: 사진이 멋지다고 말하는 A의 반응에 대해 B가 자신도 사진이 멋지다고 답하는 것으로 보아, B의 빈칸에는 동의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11.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휴가 잘 보냈어?

B: 아니,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A: 어땠는데?

B: 일주일 내내 날씨가 안 좋았어.

- ① 그래서 누가 ② 어땠는데
- ③ 언제였어 ④ 시간 좀 있어
- ⑤ 어떻게 지내

정답해설: 휴가 잘 보냈는지 물어보는 A에게 B가 휴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답하고, A의 빈칸 질문에 대해 휴가 기간 내내 날씨가 안 좋았다고 답하는 것으로 보아, A의 빈칸에는 휴가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 ① 어디로 가시나요 ② 누구세요(전화상)
 ③ 그곳에 어떻게 가시나요 ④ 어디에 계신가요
 ⑤ 당신은 무엇을 찾으시나요

정답해설: 대화문은 북(Nord)역에 가려고 전화로 택시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A가 택시 한 대를 요청하고 B의 빈칸 질문에 대해 오데옹(Odéon)역 2번 출구에 있다고 답하는 것으로 보아, B의 빈칸에는 A의 현재 위치를 묻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15. 순서 맞추기

A: 너 오늘 오후에 바빠?
 B: c. 무엇을 하려고?
 A: 같이 카페에 가자!
 B: 몇 시에?
 A: 14시 b. 왜 안 되겠어(나쁘지 않지)?
 B: 아주 좋아. a. 나는 좋아.
 A: 잠시 후에 보자.

<보 기>

a. 나는 좋아 b. 왜 안 되겠어(나쁘지 않지)
 c. 무엇을 하려고

- ① a - b - c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정답해설: 대화문은 A가 B에게 오후에 함께 카페에 가자고 제안하면서 시간을 정하는 대화 상황이다. <보기>의 선택지들을 대화문의 빈칸에 넣어 자연스러운 대화 상황이 만들어지는 조합은 c-b-a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16.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너 야시장에 나랑 같이 갈래?
 B: 아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A: 유감이야. 너랑 같이 거기 가고 싶었는데.

- ① 멋지다 ② 전혀 그렇지 않아
 ③ 잘됐다 ④ 유감이야
 ⑤ 모르겠는데

정답해설: 대화문은 야시장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는 A에게 B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거절하는 대화 상황이다. A의 제안을 거절한 B에 대해 A가 같이 가고 싶었다고

덧붙여 말하는 것으로 보아, A의 빈칸에는 함께 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유감의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17.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도와줘서 고마워.
 B: 천만에. 언제나 나를 믿어도 돼.
 A: 정말 고마워.

- ① 미안해 ② 천만에
- ③ 유감이야 ④ 조심해
- ⑤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

정답해설: 대화문은 도움을 준 B에게 A가 감사 표시를 하는 상황이다. 고마움을 표하는 A에게 B가 언제나 자신을 믿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B의 빈칸에는 감사 표시에 대한 응답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18. SNS 안내문 내용 이해하기

브장송(Besançon) 도시 탐방	2026년 10월 10, 17, 24일 토요일 14시 30분부터 16시까지 만남 장소: 그랑빌(Granville) 광장 참가비: 1인당 3유로 10세 미만은 무료 가이드 전화번호: 07 12 34 56 78 참가자 등록: www.villebesancon25.com
------------------------	--

- ①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② Granville 광장에서 모인다.
- ③ 참가자 등록은 전화로 가능하다.
- ④ 10세 미만은 참가비가 무료이다.
- ⑤ 10월 중에는 세 번의 탐방이 있다.

정답해설: 안내문은 2026년 10월의 토요일인 10일, 17일, 24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브장송(Besançon) 도시 탐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답지 중에서 참가자 등록과 관련된 답지 ③ ‘참가자 등록은 전화로 가능하다.’는 안내문에서 전화가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안내문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19.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아주 만족스러워 보이는데.

B: 응, 얼마 전에 운전면허를 땀거든.

A: 드디어! 오래전부터 네가 바랬던 거잖아.

- ① 드디어 ② 네가 원망스러워
③ 난 반대야 ④ 분명히 아니야
⑤ 물론 아니야

정답해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친구가 운전면허를 났다는 말에 대한 반응으로 ‘오래전부터 바라던 일’이라는 표현이 뒤에 오는 걸로 볼 때, ‘마침내, 드디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20.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휴대폰 가격이 다시 올랐어.

B: 얼마나?

A: 100 유로.

- ① 가장 잘 ② 너무 많이
③ 한 번 더 ④ 가능한 한 일찍
⑤ 처음으로

정답해설: 밑줄 친 부분은 '다시'라는 뜻의 숙어로 반복을 나타내는데, 이것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③의 '한 번 더'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정답 ③

21. 대화 내용 이해하기

A: 너 책을 읽었니?

B: 이제 막 시작했어.

A: 어디까지 읽은 상태야?

B: 첫 3쪽만 읽었어.

- ① 무슨 책 ② 어디 출신이니
③ 어디까지 읽은 상태야 ④ 어디서 그걸 읽니
⑤ 그럴 필요 없어

정답해설: 첫 3쪽만 읽었다는 대답에 적절한 질문은 진행 상태나 정도를 묻는 '어디까지 읽은 상태냐'는 ③이 올바르므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22~26] 문화

22. 음식문화

일반적으로, 프랑스식 식사에서는 식욕을 돋우기 위해 먼저 따뜻한 것이건 찬 것이든, 가벼운 요리가 나온다. 이것이 앙트레(전식:前食)이다.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이 나온다. 이것은 주요리이다. 그리고 후식으로 식사를 마친다.

- ① 정식 ② 앙트레, 전식(前食)
- ③ 버터 ④ 조리법
- ⑤ 잼

정답해설: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것은 프랑스식 식사에서 제공되는 요리의 순서에 대한 것으로 주(主) 요리 전에 나오는 앙트레, 즉 전식(前食)에 대한 것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23. 언어문화

A: 영화를 보러 가는 건 어떨까?
B: 오늘은 아니야. 난 빈털터리야.
A: 돈이 없어?
B: 응, 수중에 동전 한 푼도 없어.

정답해설: 밑줄 친 표현의 의미는 마지막에 나온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뜻임이 대화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24. 프랑스어권(francophone) 문화

프랑스어와 프랑스어권 주간은 프랑스어가 모두에게 개방된 현대 언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프랑스어를 좋아하게 하고, 또 사용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 주간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몇 게임과 공연을 제안한다. 또한 젊은이들이 프랑스어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게 10 단어를 말해봐’라는 대회도 있다. 2026년에, 이 대회는 그들로 하여금 다가올 세상 [미래의 세상]에 관해 10개 단어를 사용케 했다.

- ① 프랑스어를 좋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② 이것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싶은 욕구를 부여하려고 한다.
- ③ 이것은 프랑스어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정되었다.
- ④ ‘내게 10개 단어를 말해봐’ 대회는 젊은이들을 즐겁게 할 수 있다.
- ⑤ ‘내게 10개 단어를 말해봐’ 대회에는 사용이 금지된 10개 단어가 있다.

정답해설: 제시문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⑤이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25. 지리문화 : Avenue des Champs-Élysées

A: 8구에는 뭐가 있어?

B: 샹젤리제 대로가 있어. 네가 원한다면, 같이 가자. 오늘은 자동차 없는 일요일이야. 한 달에 한 번의 일요일에 차들은 파리의 이 거리에 접근할 수가 없어.

A: 멋지군! 난 Tour de France의 결승점[도착점]이나 7월 14일의 행진 같은 큰 행사 때 TV에서만 봤어.

B: 거기, 그 대로 가운데서 산책을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야.

정답해설: Tour de France의 출발점이라는 c와 매주 일요일에 차량이 통제된다는 d는 제시문과 어긋나고, a와 b만 올바른 기술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

26. 인물문화 : Jules Verne

Jules Verne는 1828년 Nantes에서 태어났다. 세월이 흐른 후, 그는 파리로 가서 부친의 길을 뒤따르기 위해 법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그의 머리 속에는 한가지 생각만 있었는데, 그것은 ‘작가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우선 연극 작품을 쓰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Alexandre Dumas를 만난 덕분에 자신의 희곡 작품 하나가 Théâtre-Histoire에서 공연되었다. 그 후에 또한 ‘80일간의 세계 일주’ 같은 소설들도 썼다.

<보 기>

a. 그는 파리에서 법학 공부를 했다.

b. 그는 부친과 함께 소설 작품들을 썼다.

c. 그는 제일 먼저 희곡 작품들을 썼다.

d. 그는 Alexandre Dumas를 첫 번째 희곡 작품으로 유도했다.

정답해설: 부친과 함께 소설을 썼다는 b와 Alexandre Dumas를 희곡 작품을 쓰도록 이끌었다는 d는 제시문과 어긋나고 a와 c가 올바른 기술 내용이므로 정답은 ②번이다. **정답 ②**

[27~30] 문법

27. 소유형용사

남학생: 각자가 자신의 가능한 최선의 의견을 제시했어?

여학생: 아니, 모두 다는 아니야.

정답해설: 단수의 부정대명사 chacun에 대응하는 소유형용사는 son, sa, ses인데 남성단수명사 avis(meilleur avis에서 meilleur가 남성단수이므로 avis도 단수)를 수식하므로 son이 정답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정답 ③

28. 전치사 en

A: 최근에 Pierre에게 무슨 일이 있어?
 B: 왜?
 A: 요즘, 개는 항상 검은 옷을 입어.

정답해설: 전치사 en은 다양한 용법이 있고, 보통 뒤에 관사나 한정사 없이 명사가 오는데 관용적 표현에서 관사나 한정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a)에서 en ce moment은 관용구로서, ‘지금’ 또는 ‘요즈음’의 뜻이 된다. 그리고 (b)에서 <en + 색깔>은 보통 ‘~색 옷을 입고’의 뜻으로 쓰인다. 따라서 (a), (b) 모두 en이 올바르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정답 ④

29. 관사 생략

- a. 그녀는 피아노를 친다.
- b. 나는 (그) 마을이 기억난다.
- c. 이 감자튀김은 소금이 부족하다.
- d. 이 방은 사무실로 쓰인다.

정답해설: 본 문항은 관사의 생략에 관한 것이다. 프랑스어에서는 문장 속에 명사가 나오면 원칙적으로 그 앞에 반드시 관사나 다른 한정사가 선행되고, 함부로 관사 없이 사용할 수 없다. a에서 jouer는 <jouer de+정관사+악기> 구문으로 쓰이므로 정관사 le를 넣어서 ‘Elle joue du piano.’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b에서도 의미상으로 ‘어떤 특정한 마을’을 지칭해야 하므로 정관사나 지시한정사를 사용하여 ‘Je me souviens du[혹은de ce] village.’로 고쳐야 한다. c는 <manquer de + 명사>의 간접타동사 구문으로 이때 부분관사 du가 생략된 것으로, 옳은 문장이다. 전치사 de 다음의 명사 앞에 의미상으로 부분관사 du, de la, de l’나 부정관사 복수 des가 오는 경우, 발음의 편의를 위해 부분관사, 부정관사 des를 생략한다(cf. 정관사와 발음이 확연히 구분되는 부정관사 단수 un, une는 생략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d에서 servir는 <servir de+무관사 명사>의 구문으로 ‘~의 역할을 하다’라는 간접타동사 구문으로서 관사가 생략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d도 옳은 문장이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정답 ⑤

30. <부정대명사+de+형용사> 구문

A: 새로 온 팀장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B: 예, 그렇습니다.

정답해설: 의미상 남성/여성의 구분이 없는 중성의 부정대명사를 형용사가 수식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놓고 둘 사이에는 de를 넣는다. 이때 형용사는 중성대명사를 수식하므로 형용사는 남성단수 형태로 한다. 이 규칙에 적합한 보기는 a밖에 없다. 부사 bien은 형용사적으로도 흔히 쓰이는데 원래 부사라 성수 변화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a는 적절하다. b의 de voir는 어법상으로 틀렸는데, à voir로 고쳐야 한다. 부정법이 앞의 명사/대명사를 수식할 때 의미상의 목적어 관계일 때에는 <명사+à+inf.>가 된다. quelqu'un à voir로 해서 '만나봐야 할 사람'이라는 의미가 된다. 마지막으로 c는 de gentil로 고쳐야 어법상 올바른 표현이 된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a뿐이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정답 ①